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문숙자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Lessons Using Action Learn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n Nursing 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ook Ja Moon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강의식 교수학습방법과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 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리더십 교과명 2학점, 15주 학사일정 중 주 2시간 8주간 액션러닝 학습방법을 통해 그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을 측정하였다. 일반 강의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집단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집단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과 각각의 하위영역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전, 사후 비교는 대응표본 t-test로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t=8.28, p<.000$), 셀프리더십 ($t=8.92, p<.000$)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간호리더십에서는 리더십 발휘($t=5.06, p<.000$),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자신감($t=2.04, p<.043$), 자기조절 효능($t=.126,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셀프리더십에서는 행동중심적 전략($t=8.74, p<.000$), 인지적 전략($t=7.70, p<.000$)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교과과정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한 환경의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와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imparting education to nursing college students, using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and action learning teaching methods. The target of the study was to measure nursing 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preservation of the students, and determine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 method imparted 2 hours daily for 8 weeks, out of the 15-week study schedule. Ed. Notes: There is a lot of repetition, and the highlighted statement lacks clarity. I am unable to understand the study period. Does the author mean 2 hrs daily for 8 weeks? I have suggested the edits as per my understanding. Please review and revise appropriately, if required. Differences obtained between nursing 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when comparing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Pre and post comparisons of the domains were analyzed with a paired t-test. The study resul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preserva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application of the action learning teaching method, leadership in nursing as a lower area, confidence in academic self-efficiency, and self-control efficacy.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recently emerged action-learning teaching is an effective method to apply in existing curriculums.

Keywords : Action Learning, Nursing College Student, Nursing Leadership, Self Leadersh, Academic Self-Efficacy

이 논문은 2019년도 세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지원에 의하여 찍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ook Ja Moon(Sehan Univ.)

email: msjsrch@sehan.ac.kr

Received September 25, 2019

Revised October 28,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건 의료 환경은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간호요구도가 증가되고 간호 전문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에게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1]. 한국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에 간호사의 핵심간호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능력, 의사소통과 협력능력 등을 포함한 학습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는 성과기반 간호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는 간호직무를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간호지식을 많이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지식 습득을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터득하고, 비판적 사고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간호교육은 급변하는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역량중심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졸업 후 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중심교육을 실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2], 액션러닝이 간호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다.

액션 러닝은 학습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존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러닝코치와 함께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식습득, 질문, 피드백 및 성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학습방법[3]으로, 새로운 지식 습득과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고, 리더십 개발과 팀을 만들어 가는 역량 강화, 그리고 학습조직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4]. 액션러닝은 개인의 간호역량 향상과 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개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5], 의사소통 및 동기부여 등의 역량 향상에 공헌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6], 간호교육에서 액션러닝 활용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문제인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과 임상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간호리더십이란 간호사가 개인성장과 협력으로 간호의 탁월성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해 영향력을 이끌어내는 것[7]으로 최근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호리더들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모든 간호사들은 안전과 양질의 간호제공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변화에 참여해야 하며[8],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적응해 나가는 능력으로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에서는 간호관리학 교과목을 통하여 지휘 기능의 주요 영역으로 간호리더십을 다루고 있거나, 별도 과목으로 간호리더십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간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리더십은 간호대학생부터 시작하여 간호사 경력에 따른 간호직무 리더십이 개발되어 간호에 대한 가치와 전문 직업적 태도를 명확히 취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간호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9].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자기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며, 누구나 어느 정도는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나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10].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 목표를 설정하고 보상을 스스로 정하여 이루지 못한 성취 목표에 대해 자아비판 또는 처벌을 하는 자율성을 말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열정으로 업무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11]. 셀프리더십이 높은 직원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자신을 창의적이라 인식하여 근무지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한다[12]. 따라서 간호대상자를 직접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내 간호사는 즉각적인 대처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말하는 것으로[13] 자신감, 자기조절효능, 과제난이도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신감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거나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자기조절 효능은 학습자가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생각하거나 계획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는 효능기대를 말하며, 과제 난이도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학습자가 선택하는 행동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1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액션러닝 학습방법이 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15,16]. 또한 셀프리더십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7-19],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및 하위 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이 모두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0,21].

이와 같이 살펴 본 결과,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더십 함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액션러닝에 관한 연구는 간간히 보고되고 있지만[1,16,22], 일부 변수만으로 진행되어 설명하였고 액션러닝과 간호리더십, 셀프리더십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절실하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학생과 강의식 학습방법 전, 후에 따른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확인한다.
- 2)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학생과 강의식 학습방법을 적용한 학생의 간호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의 효과 차이를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리더십 교과목을 수강하는 간호대학생 중에서 팀 기반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학생과 강의식 학습방법을 적용한 학생의 간호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두 집단 사전, 사후 시차 유사실험 설계이다. 시차 설계로 나타날 수 있는 실험의 효과 확산 통제를 위해 1개의 집단은 일반 강의식 교수학습방법을 대조군으로 하여 먼저 적용하였으며, 또 다른 집단은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실험군으로 하여 후에 적용하였다(Table 1).

Table 1. Research design

	Viewpoint1			Viewpoint 2		
	Pre	Intervention	Post	Pre	Intervention	Post
Experimental group				Y1	X1	Y2
Control group	Y1	X2	Y2			

Y1: Pre-nursing 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Self-leadership
 X1: Action learning teaching method
 Y2: Post-nursing 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Self-leadership
 X2: Genera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2.1.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남에 소재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간호리더십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1학년 학생 2개 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할당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같은 교수자에게 수업을 받았으며, 같은 학년에 다른 방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2017년도 1학년 학생에게는 일반 강의식 수업 방식으로 적용하였고, 2018년도 1학년 학생은 팀학습 기반 액션러닝 프로그램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 강의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집단을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집단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다. 대조군 2개반, 실험군 2개반을 대상으로 대조군은 2017년도, 실험군은 2018년도에 각각 2학기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자료 수집을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검정력 .80, 효과크기 .15일 때 집단 최소 표본수는 64명이었다. 사전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14명으로 실험군은 105명, 대조군은 109명이었다. 이 중에서 휴학이나 군휴학 등으로 사전 사후 조사에서 누락된 자료와 불완전하게 응답한 자료 1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험군 98명(93.3%), 대조군 102명(97.1%)으로 총 200명(93.5%)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1.3 연구 도구

1) 간호리더십 측정도구

간호리더십이란 모든 간호대상자들로 하여금 건강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지도하거나 이끌어 가며,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위하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뜻하며[23], 한국간호

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프로그램 학습성과에서 간호리더십은 “간호리더십 원리를 이해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발휘한다.”로 설정하였다. 또한 간호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한 팀 및 개인과제 형태의 직접평가방법과 간호학생 개인별로 실제적으로 ‘간호리더십’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는 설문조사 등의 간접평가방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4인이 내용과 구성타당도를 검토하여 개발한 설문도구로 간호리더십 원리의 이해와 리더십 발휘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점~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리더십 원리 이해가 .94, 팀 내 리더십 발휘가 .85였다.

2)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이 스스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행동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미쳐 건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Manz[10]가 개발하고 Leel[24]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행동중심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점~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l[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행동중심적 전략이 .92, 인지적 전략이 .88이었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과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신의 전략적인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판단[25]과 신념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26]을 말하는 것으로, Kim과 Park[14]이 개발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신감, 자기조절효능,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점~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Park[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자신감이 .87, 자기조절효능 .85, 과제난이도 선호가 .78이었다.

2.1.4 연구진행 절차

1) 액션러닝 프로그램

본 연구의 팀학습 기반 액션러닝 프로그램은 Rothwell[27]의 액션러닝 모델과 간호리더십 과정 학습 목표를 토대로 8회 차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과제 진행방식은 학습 팀별로 각각의 과제를 선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액션러닝 운영 시 팀 인원은 4~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 이유는,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다양성과 창조성이 저하되고,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액션러닝에 참여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참여자가 생길 수 있어 액션러닝의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23,28].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팀 인원은 5명으로 구성하였다. 과제선정 기준은 잠금성 외[3]가 제시한 9가지 준거를 참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첫째, 실질적이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둘째, 실현 가능한 과제, 셋째, 참가자들에게 매우 관심 있는 과제, 넷째, 수수께끼가 아닌 실존의 과제, 다섯째, 의사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문제, 여섯째, 참가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제, 일곱째, 조직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한 과제, 여덟째, 외부 전문가의 표준화된 해결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아홉째, 문제 본질에 있어 기술적이기보다는 조직적인 과제를 선정하도록 한다. 주제선정은 아이디어 발산 기법을 통해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과제해결을 위해 팀 회의와 더불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도출한 지식과 자료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팀학습 활동은 매 차시 마다 아이스브레이크, 아젠다 합의, 그라운드 룰, 팀회의, 성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아이스브레이크는 팀학습 시작 전 팀원 간의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회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아젠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모임 진행 시간 계획을 말하며 그라운드룰은 모든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한 기본 규칙을 말한다. 성찰은 팀 학습 종료 시 사물에 대한 시각과 통찰력을 얻게 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수자는 액션러닝의 개념, 팀학습 방법과 브레인스토밍, 명목집단법, 마인드맵 등 아이디어 발산 기법에 대해 알려주고 러닝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교과운영

간호리더십 교과목은 간호학과의 전공 교과목으로 1학년 2학기에 편성된 2학점 2시수 과정으로 15주 학사 일정으로 운영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같은 교수자

에게 수업을 받았으며 2017년도 1학년 학생에게는 일반 강의식 수업 방식을 적용하였고, 2018년도 1학년 학생은 팀학습 기반 액션러닝 프로그램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두 군 모두 주 2시간 15주간의 학사일정 중 1주는 오리엔테이션, 2주간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4주간은 리더십에 대한 이론 강의를 진행하였다. 7주를 제외하고 주 2시간 8주간 실험군에게는 액션러닝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게는 교재를 바탕으로 내용에 따라, 리더십에 대한 이론 외에 팔로워와 팔로워십, 리더십의 핵심역량 등에 대해 교수자가 제작한 PPT 강의안으로 일반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험군의 액션러닝 학습방법은 1회 차 수업에서 수업진행 과정, 학습활동 규칙,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등 액션러닝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팀구성을 하였다. 팀은 출석부 순서대로 5명씩 구성하고 구성된 팀이 팀학습 수업동안 계속 이어지도록 하였다. 팀 구성 후 팀별 사회자와 서기, 팀명과 팀 구호, 팀 모토,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팀 빌딩을 시작하게 하였다. 매 차시별 시작과 마무리에 팀 구호를 외치게 하였으며,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 차시별 사회자와 서기를 팀원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러닝코치로서 언제나 학습자가 피드백을 원하면 즉시 해 주었다. 1회 차 수업 후에 액션러닝 팀 학습을 위한 과제를 미리 생각해서 오게 하였고, 2회차에는 액션러닝기반 팀학습 활동을 통해 각 팀 별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주제 선정을 위해 교수자가 주제선정 준거에 대해 설명하고 팀원들 스스로 아이디어 발산 기법을 통해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질문에 피드백과 아울러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제 선정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3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실제적인 활동을 하게 하였다. 1단계는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를 파악하고, 2단계는 정보수집과 자료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3단계는 원인이 명확해지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4단계는 실행계획에 따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매 회차 마다 일단 강의실에서 만나 팀원간의 토론, 일정 계획 수립, 교수자의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 후, 필요 시 팀별 외부 활동을 허용하였다. 8회차는 액션러닝 팀활동 결과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과 공유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게 함으로써 토론을 하게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팀의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여 문제 해결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성찰하게 하고 교수자의 피드백을 끝으로 과정을 마무리 하였다(Table 2).

2.1.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 검사는 χ^2 -test, t-test,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다. 둘째, 사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과 각각의 하위영역의 차이는 독립표본

Table 2. Action learning schedule and content

week	Learning content	Learning method
1	Orientation and teaming Team building and team building activities and presentations	Discussion and presentation
2	Team activities : Theme selection using idea dissipation techniques	Literature research and discussion Create reflection journal
3	Team activities : Status analysis and clarification of problem	Discussion , Create reflection journal
4	Team activities : Cause analysis and solution	Collecting data Discussion , Create reflection journal
5	Team activities : Establish action plan by choosing the best alternative	Information collection Discussion , Create reflection journal
6	Team activities : Action activities	Action activities (including external activities) Discussion , Create reflection journal
7	Team activities : Action activities	Action activities (including external activities) Discussion , Create reflection journal
8	Final result presentation and discussion	Discussion and presentation Feedback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간호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과 각각의 하위영역의 사전, 사후 비교는 대응표본 t-test로 분석 하였다.

2.1.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한 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피험자 자료수집에 서면 동의한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에 대한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서 참여한 대상자 수는 실험군 98명, 대조군 102명이며 성별, 학년, 학업 성적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498 \sim 6.541, p = .088 \sim .3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실험군 77.6%, 대조군 75.5%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실험군 100%, 대조군 98.1%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평점 3.0~3.5이하가 실험군 44.9%, 대조군 4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액션러닝 학습방법 적용 전 두 집단간의 간호리더십($t = 5.97, p = .551$), 학업적 자기효능감($t = .805, p = .609$), 셀프리더십($t = 5.12, p = .9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Table 3).

2.2.2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효과 검증

액션러닝 학습방법 적용전,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t = 8.28, p < .000$), 셀프리더십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92, p < .000$). 그러나, 간호리더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9.48, p = .344$).

각 변수의 하위영역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호리더십에서 리더십 발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06, p < .000$),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자신감($t = 2.04, p < .043$), 자기조절 효능($t = 1.26, p < .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셀프리더십에서 행동중심적 전략($t = 8.74, p < .000$), 인지적 전략($t = 7.70, p < .000$) 모두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전,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논의

본 연구는,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9.48, p = .344$). 하지만,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리더십 발휘에서 실험군($M = 3.53$)이 대조군

Table 3. General characterization of subjects and homogeneity of variables

		Experimental group(n=98)	Control group(n=102)	χ^2 or t	p
		N(%) or M(SD)			
Gender	M	22(22.5)	25(24.5)	6.541	.088
	F	76(77.5)	77(75.5)		
Grade	1	98(100)	100(98.1)	.498	.259
	2	0(0)	2(1.97)		
Average grade	< 2.5	6(6.1)	12(11.8)	4.757	.313
	2.5 ~ < 2.9	15(15.3)	23(22.5)		
	3.0 ~ < 3.5	44(44.9)	42(41.2)		
	3.5 ~ < 4.0	25(25.5)	19(18.6)		
	4.0 <	8(8.2)	6(5.9)		
Nursing Leadership		2.96(.53)	2.91(.52)	.597	.551
Academic Self -Efficacy		2.87(.31)	2.82(.30)	.805	.609
Self leadership		2.52(.56)	2.55(.46)	.512	.900

Table 4.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Variables	Category	Pre M(SD)	Post M(SD)	t ₁	p	Difference (post - pre)	t ₂	p
Nursing Leadership	Experimental group	2.96(.53)	3.65(.45)	9.14	.000*	.69(.07)	.948	.344
	Control group	2.91(.52)	3.59(.48)	9.12	.000*	.68(.05)		
AcademicSelf -Efficacy	Experimental group	2.87(.31)	3.07(.34)	5.12	.000*	.20(.05)	.828	.000*
	Control group	2.82(.30)	3.0(.34)	4.21	.000*	.17(.04)		
Self leadership	Experimental group	2.52(.56)	3.31(.77)	8.03	.000*	.80(.09)	8.92	.000*
	Control group	2.55(.46)	2.55(.46)	1.56	.012*	.12(.08)		

t₁ : paired t-test within group

t₂ : Independent t-test between group

Table 5. Differences in the sub-area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Variables	Component	Category	Pre M(SD)	Post M(SD)	t ₁	p	Difference (post - pre)	t ₂	p
Nursing leadership	Understanding principle	Experimental group	2.73(.71)	3.64(.55)	-9.69	.000*	.91(.09)	.915	.361
		Control group	2.72(.61)	3.71(.46)	-9.17	.000*	.98(.08)		
	Leadership exercise	Experimental group	3.22(.53)	3.53(.55)	4.15	.000*	.31(.08)	5.06	.000*
		Control group	2.94(.36)	3.06(.34)	-5.85	.000*	.12(.05)		
Academic self -efficacy	Confidence	Experimental group	2.90(.45)	3.06(.62)	1.94	.147	.16(.08)	2.04	.043*
		Control group	2.93(.55)	2.98(.69)	1.66	.099	.05(.08)		
	Self-regulation effect	Experimental group	2.68(.53)	3.26(.65)	5.84	.000*	.58(.08)	.126	.000*
		Control group	2.63(.53)	2.86(.45)	3.46	.001*	.23(.07)		
Homework difficulty preference	Experimental group	2.96(.34)	3.02(.42)	3.89	.367	.05(.05)	1.32	.189	
	Control group	3.01(.34)	2.94(.36)	2.69	.008*	.12(.05)			
Self leadership	Behavior-centered strategy	Experimental group	2.37(.67)	3.39(.99)	8.42	.000*	1.0(.12)	8.74	.000*
		Control group	2.31(.72)	2.46(.57)	1.58	.011*	.14(.09)		
	Cognitive strategy	Experimental group	2.61(.59)	3.26(.70)	6.77	.000*	.65(.08)	7.70	.000*
		Control group	2.50(.63)	2.61(.48)	1.34	.018*	.10(.07)		

t₁ : paired t-test within group

t₂ : Independent t-test between group

(M=3.0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06, p<.000). 이는 선행연구에서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리더십 차이를 보고한 연구 결과를 찾아 볼 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과Lee, Hong[1]의 연구에서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리더십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리더십 발휘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팀학습 과정에서 매 차시별 사회자와 서기를 팀원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였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십 발휘 기회가 주어지고 따라서 리더십 능력이 발휘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간호 리더십 원리 이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대조군(M=3.71)이 실험군(M=3.64)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본 연구에서 간호리더십에 대한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는 4주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같은 내용으로 학습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강의식 학습방법만으로 진행하였기에 간호리더십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t=.828, p<.000). 하위영역별로는 자신감(t=2.04, p<.043), 자기조절 효능(t=.126, p<.000)에서 실험군(M=3.06, 2.98)이 대조군(M=2.98, 2.86)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Bu[15]의 연구에서 액션러닝 수업 실시 이후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에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과제난이도 선호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액션러닝 교수학습 방법이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향상에는 효과가 있지만,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별다른 효과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1학년으로 학업에 대한 방법과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교수학습 방법과 상관없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액션러닝 교수학습 방법을 보다 폭 넓게 학년별로 적용해보고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셀프리더십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92, p<.000$). 또한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인 행동중심적 전략($t=8.74, p<.000$), 인지적 전략($t=7.70, p<.000$) 모두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액션러닝 교수학습 방법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셀프리더십 차이를 보고한 연구 결과를 찾아 볼 수 없어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앞서 문헌 고찰 시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어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자신을 창의적으로 인식한다고 본다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과 Lee, Hong[1]의 연구에서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창의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Kim[29]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증가할수록 학습 몰입 또한 증가되어 학습몰입에 있어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Han[30]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대학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창의성과 학습몰입, 사회적 책임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은 각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에서 액션러닝 수업을 적용한다면,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과 학생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 학생 개인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행동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고 이를 함양하게 함으로써 창의성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전통적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과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액션러닝 학습 방법 적용전,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리더십에서는 하위영역인 리더십 발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은 액션러닝 교수방법을 각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적용한다면,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액션러닝 교수 기법을 교과과정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일부 이론 수업이 이루어진 후, 액션러닝 기법을 진행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의 학년과 교과목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교과목의 평가는 상대평가이고 팀 별 평가가 성적에 반영됨에 따라 학생들이 성적을 높이기 위해 팀 활동에 집중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설계 시 평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팀 구성은 번호 순대로 구성하였으므로 팀 학습을 해 나가는데 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향후에는 팀원들 간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격유형검사나, 행동유형검사 등의 결과를 통한 팀 구성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본 연구는 시점이 다름에 따라 두 집단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실험효과 확산을 통제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호 분야에서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References

- [1] H. H. Han, M. S. Lee, Y. H. Hong, The Effect of Action Learning Teaching-Learning Method Applied to

- Nursing Students in U Cit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17, No.2, pp.17-30, 2016.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7588>
- [2] S. E. Choi, E. A. Kim, Effects of Learning Activities on Application of Learning Portfolio in Nursing Management 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6, No.1, pp.90-99, 2016.
 DOI : <http://dx.doi.org/10.4040/jkan.2016.46.1.90>
- [3] G. S. Jang, K. H. Jung, M. Baek, H. Y. Park, O. Choi, Action Learning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for Nursing Leadership Development, pp.3-57, 2016.
www.hyunmoon.co.kr
- [4] H. C. Bong, Key Success Factors of Action Learning Programs in Korean Companies:Contents and Relationships, *Korean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Vol.25, No.3, pp.1-34, 2007.
- [5] S. I. Ko, K. G. Chang, Cas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ass by Action Learning,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Vol.29, No.6, pp.256-281, 2014.
- [6] K. W. Chang, E. H. Koh, S. I. Ko,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f Action Learning in School, *The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y*, Vol.27, No.3, pp.429-455, 2015.
 DOI : <https://doi.org/10.17927/tkiems.2015.27.3.429>
- [7] J. S. Kim, Y. M. Kim, K. S. Jang, B. N. Kim, S. H. Jeong, Concept Analysis of Nursing Leadership,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1, No.5, pp.575-586, 2015.
 DOI :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5.575>
- [8] Finkelman A. W., Leadership and management for nurses: Core competencies for quality care. 2nd ed. Upper Sadler River, NJ:Pearson, 2012.
- [9] Bessie, L. Marquis, C. J., Huston, Leadership roles and management functions in nursing: Theory and application(7th ed). PA:Wolters Kluwer, 2012.
- [10] Manz C. C., Sims H. P., Super 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Vol.19, No.4, pp.18-35, 1991.
- [11] B. C. Min, S. W. Lim, Han Kyoul Kim, Hyun Sill Rhee, The Influence Factors and Effects of Self-leadership: Focusing on Members of the Hospital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23, No.1, pp.66-77, 2013.
 DOI : <http://dx.doi.org/10.4332/KJHPA.2013.23.1.066>
- [12] DiLiello T. C., Houghton J. D., Maximizing organizational leadership capacity for the future: Toward a model of self leadership, innovation and creativit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21, No.4, pp.319-337, 2006.
- [13] Bau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Freeman, 1997.
- [14]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9, No.1, pp.95-123, 2001.
- [15] S. S. Bu, The Effect of Action Learning Program on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18, No.5, pp. 29-52, 2014.
- [16] J. W. Park, C. J. Kim, Y. S. Kim, M. S. Yoo, S. M. Chae,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 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24, No.3, pp.223-231, 2012.
 DOI : <http://dx.doi.org/10.3946/kjme.2012.24.3.223>
- [17] E. J. Kim,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4, No.12, pp. 303-326, 2014.
- [18] E. J. Chang, S. J. Lee, Effects of the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on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Vol.33, No.8, pp.75-102, 2016.
- [19] H. J. Cha, Y. M. Ko, J. H. Kim, S. J. Byun.,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freshm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9, pp.293-313, 2016.
- [20] Y. M. Ko, Y. U. Yoo, Effects of a Self-Leadership Lecture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Motivation of Freshmen Majoring i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18, No.5, pp.541-560, 2014.
- [21] Y. H. Choi, C. S. Jung,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I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604-4613, 2015.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604>
- [22] K. H. Chung, Reflection Analysis after Action Learning based Team Project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Capacity Development, *Korean Academy of Nursing Education Conference*, Seoul, 5, pp.152-153, 2015.
- [23] K. S. Jang, B. N. Kim, S. H. Jeong, Y. M. Kim, J. S. Kim, A Study on Evaluation System for Nursing Bachelor Degree Program Outcomes: Focus on Improvement in Nursing Leadership Abilit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2, No.5, pp.540-552, 2016.
 DOI :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5.540>
- [24] J. S. Lee,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aster's Thesis, 2001.
- [25] Schunk, D. H.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Vol.25, pp.71-86, 1990.

- [26] Putwain, D. W., Symes, W., Remedios, R., The impact of fear apples on subjective-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 role of appraisal.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1, pp.307-313, 2016.
- [27] Rothwell W. J., The action learning guidebook: a real time stratege for problem solving training design, and employee development. Jossey-Bass Pfeiffer, 1999.
- [28] Y. M. Kim, K. S. Jang, An Action Research Study on the Effects of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Professionalism Course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41, No.4, pp.123-147, 2014.
- [29] Yu-Mi Kim,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112-122, 2016.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6.17.7.112>
- [30] J. R. Han, The Effects of Metacognition and Self-leadership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11, pp.393-400, 2018,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8.16.11.393>

문 속 자(Sook Ja Moon)

[정회원]



- 2010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과 학대학(간호학 박사)
- 1986년 11월 ~ 2014년 6월 : 서울적십자병원 (간호부장)
- 2014년 9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리더십, 팔로워십